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2년 10월 제 124-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선우 선생의 ‘형제애’ 바탕으로 ‘하느님 사업’ 이어가야”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나자렛 예수’를 본받아



1



2



3



4



5

1 선우 선생 진료실에 모셔져 있던 십자가. 2 2005년 11월 푸코 성인 시복식에 앞서 방문한 벨기에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인 ‘바뇨의 성모’ 성지에서. 3 환자를 진료하는 선우 선생. 4 선우 선생을 아낀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5 요셉의원 2층 전시장에 보관된 선우 선생 진료복과 청진기.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은 본원은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의 기념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우 선생의 유물과 유품을 정리, 분류하는 기록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선우 선생의 전기 집필도 시작했다. 선우 선생 전기는 김수환 추기경과 최근 출간된 김대건 신부 전기를 저술한 이충렬 작가가 맡아 2024년도 초에 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우 선생이 생전에 교류하고 관계를 맺었던 교계와 의료계 및 일반 사회 인사 수십 명에 대한 구술도 녹화 및 녹취를 진행 중이다. 이 ‘증언’들은 선우 선생이 무료 자선병원 설립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2008년 선종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오직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사랑과 고난의 여정’을 되살림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에

124-1호
주요
소식



1

선우 선생 영성의 원천



4

요셉의원 소식



6

봉사자 코너



10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3

국교회 소식



귀감이 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까지 한 남부러울 것 없는 엘리트 의사가 보장된 미래를 마다하고 가난한 환자를 돈 안 받고 치료하고 옷과 음식을 주면서 이들을 자활의 길로 인도하려 한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혼도 하지 않고 지병으로 63세의 삶을 마감한 그분의 삶은 신앙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깊은 신앙에서 우리나라 애금심

그러면 선우 선생은 어떤 연유로 일반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고난의 외길을 가게 된 것일까. ‘천성이 착하고 부모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던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 깊은 신앙심이었을 것으로 주위에서는 보고 있다. 선우 원장의 어머니 고 손정복 여사는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교에 입교해 돈독한 신심을 지니고 있었고, 장년이 돼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아버지 고 선우 영원 용도 길음동 성당의 사목협의회장을 지내는 등 가정에는 신앙적 분위기가 충만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덧붙여, 선우 선생의 신앙적 원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올해 5월 가톨릭 성인품에 오른 ‘샤를르 드 푸코’(1858~1916) 신부의 영향이다. 선우 선생은 미국



부친 선우 영원 용은 선우 선생이 가톨릭의대 재학 중 신학교로 방향을 돌리겠다고 하자 크게 화를 냈으나, 이후 무료 진료에 헌신하는 아들을 지원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사진 왼쪽은 서울중학교 1학년 때 부친과 함께, 오른쪽은 요셉의원 앞에서 직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에서 귀국한 후인 1983년 경 ‘사막의 은수자’로 불리는 푸코 성인의 영성을 따르는 ‘예수의 작은 형제회’ 제3회(재속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나자렛 시절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요셉의원 운영에 그대로 반영됐다.

푸코 성인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신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군인 출신으로, 한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던 중 무슬림의 순박하고 투철한 신앙에 감명받아 1886년 교회와 화해하고 기도와 금욕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은수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1890년 나자렛에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 입회했다. 7년 뒤 수도회를 떠나 나자렛의 클라라회 수녀원 문지기로 들어가 비천한 노동과 성경 공부, 기도를 하며 3년을 살았다. 이때 그는 나자렛 시절 스승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성소(聖召)를 확인했다. 1900년 사제품을 받은 뒤 사하라 사막의 오지인 알제리 타만라세트 근처 산지에 은수처를 마련하고 11년 동안 원주민인 투아렉족과 함께 생활했다.



사진 왼쪽부터, 선우 선생이 영적으로 본받으려 한 샤를르 드 푸코 성인의 마지막 사진, 2005년 11월 바티칸에서 열린 푸코 성인 시복식에 참석한 선우 선생(맨 오른쪽), 선우 선생이 구입해서 주위에 나눠준 푸코 성인 관련 책자들, 2005년 10월 베트남 신학교 방문 시 사제들이 입는 수단과 장백의를 입은 모습.





그는 사막의 이슬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설교가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 차별 없는 ‘보편적 형제애’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굿뉴스’ 성인편 참조).

샤를르 드 푸코 성인의 영성을 따라

선우 선생과 재속회 활동을 같이했던 이성구 회원은 “푸코 성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상당 부분을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부리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사용하며 교회를 향해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던 것과 같이, 선우 선생 역시 보편적 형제애로 쪽방촌의 가난한 이들을 보듬었고, 교회에서 무료 병원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푸코 성인은 시련이 닥치면 불굴의 의지를 드러냈고, 일하는 데에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내와 지구력을 보여주었으며, 사막에서 ‘남이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주님과 똑같이’ p.49)는 점에서 그와 선우 선생은 닮은 점이 많다.

선우 선생은 남들이 기피하는 ‘사막 같은’ 쪽방촌 한 가운데에 병원을 차리고 버림받은 노숙인, 부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 가족처럼 진료하고 밥을 주고, 옷을 입혔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이들을 사람 대접하고 형제처럼 대했다. 이런 태도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문주 전 원장신부는 “선우 선생은 주머니에 항상 잔돈을 여러 개 넣고 다니면서 거리나 전철에서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꼭 돈을 건네곤 했다”고 회상했다.

여동생 명식 씨는 본지 인터뷰(99호)에서 “늦은 밤 퇴근 길에서 만난 노점상이 아직도 물건을 팔고 있으면 ‘얼른 집에 가시라’며 남은 물건을 모두 사갔고 와 집에 비슷한 물건이 수북이 쌓이곤 했다”고 전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응답

요셉의원은 바로 선우 선생의 이런 신심과 애공심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곳이다. 선우 선생의 이런 믿음에 대해 하느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요셉의원 개원 뒤 주위에서는 ‘무료 병원이 석 달 가기 힘들 것’이라는 말들을 했다. 그러나 석 달 아닌 올해로 35년을 이어온 것은 많은 뜻있는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선우 선생 자신도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

♥ 초대합니다

‘기억하다 -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선우 경식 요셉 기림 미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기억하다 -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첫 번째 미사로
안중근 토마스(1879~1910) 의사를 기리는 미사로 봉헌하였고,

그 두 번째 기림 미사를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을
기리는 미사로 봉헌합니다.

요셉의원 초대원장인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을
기리는 미사에 환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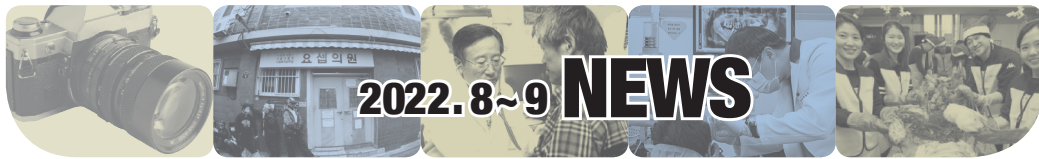
함께 미사를 드리며 선우 선생님의 정신에 따라
우리 요셉의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에 대한 사랑
과 봉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 시 : 2022. 11. 12.[토] 오전 10시
장 소 : 명동대성당
주 레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구나”하고 주저 앉아있을 무렵에는 어김없이 후원자가 나타나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너무 절묘해서 가슴이 섬뜩함을 느끼곤 했다. 어렵듯이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경향잡지 2007년 12월호 인터뷰에서)

선우 선생의 가톨릭의대 2년 선배로 1980년대에 신림동 달동네 주말 진료를 같이 했고, 선우 선생의 권유로 ‘예수의 작은 형제회’ 재속회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이경식 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선우 선생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분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이룰 수 없는 일을 했다”며, “환경이 바뀌어도 선우 선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업’이 아닌 ‘하느님의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수행해 나가는 일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



선우 경식 선생 '기림 미사' 봉헌 예정

본원 초대 원장인 선우 경식(요셉, 1945~2008) 선생을 기리는 '기림 미사'가 11월 12일(토) 오전 10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장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된다. 이번 미사는 서울대교구가 추진하는 '기억하다 -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림 미사다. 이 미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신앙 선조를 기리고 그 모범을 따르자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올리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 첫 번째 미사로 안중근(토마스) 의사의 기림 미사가 지난 3월 26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다.

본원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평신도로서 가톨릭 신앙인의 모범으로 선정된 선우 선생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금심은 우리 모두의 사표"라며,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여해 선우 선생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쪽방촌 주민 300여 명에 추석 선물 전달



쪽방 주민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본원 황보신이 원목수녀.

주년 기념 및 추석 선물 증정을 겸해서 실시했다.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는 "현재 쪽방촌 주민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도시락을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이분들 중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본원 직원과 봉사자 30여 명은 9월 8일 오후 영등포역 앞 쪽방촌 지역을 돌며 주민 300여 명과 영등포역 노숙인들에게 각각 구운 달걀 1상자(30개)씩을 전달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원 35

'김수환 추기경과의 추억' 발간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구 회장을 역임한 오덕주 전 후원회장이 김수환 추기경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19년

에 출판한 '김수환 추기경과의 추억' 개정판을 출간했다. 오 회장은 300부 한정판으로 출간한 이 책에서 고 김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으로 재임할 때 가톨릭여성연합회장과 가톨릭평신도연합회 부회장 등을 맡아 세계성체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힘을 보탰던 이야기와 자신의 반평생 삶을 진솔하게 담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본원 방문



최호권 신임 영등포구청장(사진 왼쪽)이 10월 17일 본원을 방문해 본원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본원이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등 관심사를 논의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재개발과 관련해 본원이 당면한 어려움을 전달했고, 최 구청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협조를 약속했다. +

이문주 전임 원장신부 사제수품 60주년 기념미사

본원 2대 원장신부와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 담당신부를 역임한 이문주 원로신부의 사제수품 60주년 기념 및 영명 축일을 기념하는 국성회 후원 미사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본원 3층 경당에서 이 원로신부와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국성회 후원자와 요셉의원 직원 및 봉사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이문주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 원로신부는 축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미사 강론에서 어린 시절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해 회고했다(관련기사 14쪽).



쪽방촌 향기

“주어진 봉사 기회에 감사하고, 초심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기쁨이나 보람 없이 그저 직장인이자 밥벌이로서 해오던 업무 이외에,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해볼 수 있게 인연과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요셉의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셉의원에서 저녁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새 언젠가부터 식당이나 진료실에 비치된 요셉 회보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회보 내용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기고하여 주시는 ‘쪽방촌 향기’입니다.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서로 만나는 일이 없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궁금하고, 글도 재미있어서 한 부씩 발행될 때마다 가방에 넣어 다니며 회보 전체를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맹치훈

본원 내과 봉사의
경희대의대 부교수

사실 제가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그리 숭고하거나 거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기적이고 생뚱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 전공인 혈액종양내과 의사로서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일반 내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암 환자의 항암 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기에, 늘 곧 닥쳐올 죽음과 불량한 예후, 항암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제 그릇이 그만큼 되지 않아서인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반복되는 감정입, 그리고 임종이 점차 다가오는 환자의 경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의 원망을 감당하는 일을 지속해서 겪다 보니, 저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보다는 다소 덜 심각한, 외래 위주의 경증 내과 질환을 보면서 머리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식혀보고, 동시에 제가 가진 작은 재주로 봉사를 할 수도 있으니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알팍한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 환자들로부터 잠시 빠져나와, 늘 복용하던 혈압약을 똑같이 처방하고, 기침 환자에게는 기침약을, 소화

았습시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제 역량의 부족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이 좀 나아지셨는지 걱정도 하면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내과적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경증’으로 치부하며, 손쉽게 약물 몇 가지 처방하고 끝내려는 나 자신이 옳지 못했다는 자각도 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이 아닌 이곳

을 찾아오기까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할 여러 피치 못할 사정들을 생각할 때,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환자들을 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운 깨달음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 후로는 한 분 한 분을 중요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동일한 약을 타러 오신 분들이더라도 혈압이나 혈당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을 놓치지 않으려 최대한 고민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으로 검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다음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진료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연계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의무기록에 저의 진료 소견을 레지던트 때 배운 정석대로 충실히 기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흔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이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하얀 가운이 주는 기쁨 떨림과 설렘을 잊은 지 오래된 저에게, 기쁨이나 보람 없이 그저 직장인이자 밥벌이로서 해오던 업무 이외에,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해볼 수 있게 인연과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요셉의원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요셉의원에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봉사자 코너

아내·딸과 함께 의료봉사하는 조현기 치과의 “가족과 함께 봉사하니 기쁨이 배가됩니다”



3년 전 본지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의료봉사 할 기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본원 조현기 치과봉사의(에이덴치과 원장)가 여섯 달 전부터 부인 윤혜영 여사와 함께 진료봉사를 나오고 있다. 특히 6,7월에는 방학을 맞아 귀국한 셋째 딸도 부모를 따라 동참해, 가족 셋이 함께 진료봉사를 나오는 ‘드물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인 윤 여사와 딸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조 봉사의 치과에서 기본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들은 치과 진료 중 석션, 기구정리, 기구 세척, 필요한 재료와 기구 가져다 주기, 진료 후 작업대 정리 및 다음 진료 준비 등의 간단한 진료 보조를 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진료 봉사에 대한 소감을 묻자 조 봉사의는 “같은 관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둘 다 만족하고 있다”며,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봉사가 더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딸 셋을 둔 조 봉사의 부부는 막내가 고교를 졸업하면 본원에 함께 봉사를 나가기로 오래 전부터 약조를 했다고 한다. 현재 큰 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4년차, 둘째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외국에서 제약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셋째 딸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인 윤 여사가 진료 봉사에 참여하게 된 데는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이 큰 자극이 됐다.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 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다른 부모들을 보고 무척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지껏 저와 제 가족만 바

라보는 삶을 살아왔다는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봉사에 대한 작은 불씨가 지펴졌지만, 귀국해서 봉사하겠다고 선뜻 남편을 따라 나서려니 의료 관련 자격증도 없고, 치과 일도 잘 모르면서 민폐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때 남편이 듬직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가르쳐 줄테니 걱정마소. 나이 들어서 같이 봉사 다니면 좋잖우’하고.

윤 여사는 ‘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요셉의원에서의 시간들이 또 다른 배움이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오가는 시간들이 좋고,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뿌듯함,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 그날 있었던 봉사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딸 조윤서 씨 역시 부모님과 함께 하는 봉사가 뜻깊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제가 아직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에 즐겁게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니 치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어 꾸준히 나오지 못해 아쉽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조 봉사의는 앞으로 막내가 치대에 진학하면 딸들과 함께 ‘가족 의료봉사팀’을 꾸려 해외 의료봉사도 나가볼 생각이요. 명절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함께 모여 봉사를 한 뒤, 다시 각자가 거주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봉사라고 하면 언뜻 일방적으로 뭔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베푸는 만큼 내가 받는 보상도 크다는 게 조 봉사의의 지론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장하고 완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남을 돕는 일에 눈을 돌리면 자신의 직업적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삶도 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봉사 시간은 오히려 힐링하는 시간에 가깝다고 할까요.”

조 봉사의는 특히 “봉사를 하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환자스토리



자활 준비하는 대졸 노숙인 정희용 씨

“잘 커준 외동딸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떠도는 노숙인 가운데는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법한데도, 어떤 연유인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 그냥 눌러 앉아있는 이들도 더러 눈에 띈다. 본원 부설 자활 쉼터인 ‘목동의 집’ 입소자인 정희용 씨(가명·61)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H그룹 계열 K사에서 과장까지 지냈던 그는 노조에 가입해 파업과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3월 ‘강제 해고’를 당했다. 그 몇 달 뒤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대학생 외동 딸에게 하나 있는 집을 훌쩍 명의 이전해주고 집을 나왔다. 그리곤 가진 돈이 떨어지자 영등포역 주변과 서울역, 음성꽃동네 등을 전전하며 9년 여를 살아왔다.

“해고 두 달 뒤 세상을 뜬 아내가 생각나 더 이상 살던 집에서 못 있겠더군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계를 생각해 큰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더니 노조원 이력이 걸리고, 중소기업은 마음이 안 내켜서 취업을 포기했어요. 열심히 살면 뭐하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팽배했었고요.”

딸은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아버지 친구로부터 영등포역에서 봤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듬해 봄 영등포역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아빠’하고 부르길래 쳐다봤더니 딸이에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딸은 찌죄죄한 내 모습을 보더니 목욕을 한 뒤 식당 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집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정 씨가 본원에 처음 찾아온 것은 2016년 2월. 예전부터 아팠던 다리가 시커멓게 변하고 살이 물러지면서 진물도 났다. 급한 대로 약 처방과 함께 다리에 압박붕대를 감는 처치를 받았다. 이어 2년 뒤 안양의 개신교 시설에 기거하다 상태가 심해지자 평촌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입원치료를 했다. 담당 의사는 다리 혈관이 약해 정맥 혈액 순환이 잘 안되는 병이어서 완치가 어렵다고 했다.

“퇴원 뒤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아는 사람 소개로 음성꽃동네에 입소하게 됐어요. 거기서 배식 담당을 하고 천주교 교리공부도 했지요. 그러다 숙부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퇴소한 다음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갔어요.”

정 씨에 따르면 노숙인도 성향에 따라 생활방식이 좀 다르다고 한다. 대체로 술을 먹는 이들과 먹지 않는 이들로 나뉜다. 정 씨는 네 살 때부터 개신교회에 다닌 신자여서 금주파에 속한다.

“노숙인들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데, 저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다섯 명이 함께 다녔죠. 그중 한 분은 서울대를 나와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사업가 출신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도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 유학을 한 선배 노숙인은 ‘우리가 언제 돈 갖고 살았냐’며 꿈초를 주워 피워도 앵벌이는 절대 안 하고, 모두들 교회에 갈 때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갑니다.”

지난해 말 겨울철 다리 혈관 문제가 악화돼 피가 나기 시작하자 본원을 찾은 정 씨는 간호팀이 서울의료원으로 전원시켜 수술 치료를 받게 했다. 이어 성가복지병원으로 옮겨 한 달여 가료를 받다 올해 1월 본원 ‘목동의 집’에 입소했다. 목동의 집은 단기 쉼터여서 다른 생활터전을 찾아야 한다.

“목동의 집에서 소장님 주선으로 서울시가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도 수강했고, SH공사에 임대주택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다리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에 더 깊이 매진할 생각입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굴지의 S사에 입사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딸과 합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그는 “자식은 크면 자기 길을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안부나 물으며 행복을 기원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

후원의 손길

30년 가까이 본원 후원해온
이화여대 영문과 영우회원들

“친목 위해 모였지만 작은 정성 모아 드립니다”



80 고령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다지고 있는 영우회원들이 여행 중에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계자 회장, 맨 오른쪽은 민혜성 회원.

30년 가까이 본원을 후원해 온 한 여대 동창들이 팔순을 맞으면서 앞으로는 여력이 닿는 한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아 본원에 큰 격려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이화여대 영문학과 65년도 졸업생인 영우회(회장 최계자) 14명. 영우회는 평소 뜻을 같이했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 몇 년 뒤 결성한 친목단체로,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이외에 대학 주요 행사 때 후원을 하기도 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불우이웃돕기 등에 나서기도 했다.

최계자 회장은 “1996년 쯤 이화여대에서 결식아동을 위

한 급식을 진행할 때 저희도 참여해 도움을 주다가 서울시에서 맡아 도와주기로 하자 같은 금액을 요셉의원에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본원 후원을 추천한 사람은 민혜성 회원으로, 아웅산 사태 당시 대통령 주치의로 방문단에 참여했다 순국한 민병석 전 서울성모병원장의 동생이다. 민혜성 회원은 “오빠 20주기를 맞아 가톨릭의대 내과학 제자들이 연 심포지엄에 가족들도 오라고 해서 가보니 제가 후원하고 있던 요셉의원의 선우 경식 원장님도 계셔서 오빠 제자인 줄 그때 알았지요.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실 때 요셉의원 2대 원장이신 이문주 신부님이 서울성모병원 원목신부님이셔서 요셉의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회원들이 모였을 때는 마침 요셉의원 후원금 이체 일정이 종료돼 앞으로 더 후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나이가 든 만큼 이제 모임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거수로 찬반을 물은 결과 요셉의원에는 후원을 계속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건강이 크게 나쁘지 않으니 모임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계장 회장은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날까지 요셉의원에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태겠다”며 활짝 웃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2년 8~9월)

- 강지연 ●강지우 ●강태형 ●고기현 ●곽경숙 ●김가희 ●김강산 ●김경혜 ●김경화 ●김경희 ●김나영 ●김나운 ●김다영 ●김도아
- 김미겸 ●김미숙 ●김미카엘라 ●김민경 ●김민철 ●김병용 ●김 선 ●김선유 ●김선희 ●김소명 ●김수정 ●김요람 ●김요조
- 김원숙 ●김유옥 ●김윤섭 ●김은경 ●김은서 ●김재곤 ●김정아 ●김정희 ●김주환 ●김지현 ●김진영 ●김진희 ●김현옥 ●김형섭
- 김혜정 ●노유상 ●노유진 ●류은미 ●문준영 ●박봉근 ●박상복 ●박서영 ●박소정 ●박영훈 ●박정선 ●박정희 ●박주희 ●박채영
- 박해주 ●박희민 ●배대혁 ●배시안 ●배유진 ●백수진 ●백승찬 ●백주현 ●보현행 ●서민경 ●서정배 ●석영숙 ●성정은 ●손경자
- 손민하 ●손혜인 ●송명옥 ●송민정 ●송형자 ●신성우 ●신평자 ●안명수 ●오석호 ●오해수 ●오현미 ●우명범 ●우진혜 ●유인숙
- 유진영 ●윤나온 ●윤다영 ●윤영해 ●윤희은 ●윤희은 ●이강문 ●이강민 ●이경수 ●이경환 ●이덕구 ●이도현 ●이명진 ●이미희



●이민정 ●이선화 ●이 성 ●이세연 ●이수진 ●이애자 ●이영경 ●이영주
 ●이예슬 ●이우경 ●이윤정 ●이정래 ●이정미 ●이탁준 ●이하윤 ●이 현
 ●이현숙 ●이호영 ●이훈국 ●임정욱 ●임정호 ●임조안 ●임주현 ●장여민
 ●장을숙 ●장인희 ●전귀희 ●전정은 ●전현아 ●전희원 ●정다음 ●정윤희
 ●정지범 ●정택수 ●정혜련 ●조나미 ●조성경 ●조연우 ●조위현 ●조현주
 ●조혜연 ●조혜영 ●조화론 ●주미라 ●지승민 ●지정희 ●진경환 ●차부배
 ●채종욱 ●천 향 ●최광덕 ●최미라 ●최상임 ●최성규 ●최인영 ●최준숙
 ●최종미 ●최지영 ●최휘자 ●티이씨 ●한 승 ●한재원 ●한지원 ●한희승
 ●홍성경 ●홍성우 ●황석규 ●황진희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 (2022년 8~9월)

●근로복지공단사회봉사단 ●금촌가구단지 ●실레마을公所 ●양남이식품
 ●와이지에프섹션즈 ●채널에이치네트워크 주식회사 ●평화약국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2년 8~9월)



●곽협시바(빅토리월드) : 너트(nuts) 9상자 ●김 * 정(고척동) : 라면 1상자
 ●김경숙 레지나 : 두유 12상자, 배도라지즙 6상자 ●김유순 : 고구마
 1상자 ●김응서 : 고추가루 1상자 ●대한결핵협회장 신민석 : 스팸 1상자
 ●박수진 · 박인희 : 쌀 1박스 ●박승균 : 사과 3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쇠고기죽 11상자(264개) ●백두관 : 감자 2상자 ●보라매 병원(사회사업실) :
 쌀(20kg×5) 100kg ●아이쿱 자연드림 : 생수 48상자, 소금 6kg ●안규향 : 미역
 1팩, 액젓 1통 2개 ●안산 빈첸시오 수녀회 : 사과 2상자 ●염기숙 : 사과 1상자
 ●영등포4가 우체국장 : 배 2상자, 귤감 3상자, 사과 2상자 ●이기숙 : 스팸 1상자
 ●이정아 : 방울토마토즙 3상자 ●익명 : 쌀 80kg, 두유 2상자, 고춧가루 1상자,
 식품 1상자 ●정승일 : 쌀 10kg ●토마스의집 : 떡 2상자, 계란 15판, 김 1상자,
 우유 5상자 ●피스오브헤븐 : 케익 1상자, 롤케이크 55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혼합) 2상자 ●후암동성당(김장기 요셉) : 떡 3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2년 8~9월)



●김 * 환(군포시) : 옷 2상자 ●김은의 : 옷 4상자 ●돈암동성당 : 옷 4상자
 ●박현아 : 옷 2상자 ●익명 : 옷 4상자 ●정 * 교(여수시) : 옷 2상자 ●천원교 : 옷 2상자 ●최 * 윤(천안시) : 의류잡화 2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8~9월)



●세종약품 : 히알론 점안액 외 2종 ●평화약국 : 넥시움정20 외 3종 ●하나제약 : 노마로크 정 외 15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8~9월)



●김은* (구로구) : 잡화 1상자 ●바보의나눔 재단 : 마스크 KF94 1만장 ●이소연 : 수세미 1상자 ●하마리아 : 잡화 1상자 ●김왕기 : 커피
 (원두커피) 1상자 ●배강우 : 현관용품 2벌 ●서정원 : 손소독제(7병), 비말마스크 20매, 94마스크 90매 ●영등포4가 우체국 금융영업과 :
 치약칫솔 세트(48개), 위생백(50개), 세제세트(20개), 롤백(40개) ●정종재 프란치스코 : 샴푸 2상자 ●하마리아 : 생활용품 1상자 ●허윤희
 아네스(배관랜드) : 마스크 700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의 사 : 정혜진(가정의학과)황
 인하(신경과)이지현(한의
 과)유하균 · 김도성 · 양재
 영(이상 치과)

+ 방사선사 : 신수재 · 김민형 · 김왕기

+ 일반봉사 : 김다해 · 박규미 · 오세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김영국
 ●유구성
 ●이영천
 ●자오나학교
 ●천주섭리나눔의집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2년 8월	1,161명
2022년 9월	1,203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9월 말 현재)

725,715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8~9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슬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끝이 보이는 코로나, 다시 시작하는 요셉의원’

대면 급식, 장학생 모임 활성화, 의료봉사 재개 기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장학생들을 위한 활동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사진 왼쪽은 장학생 미사, 오른쪽은 성가 연습 장면.

최근 엔데믹이 가까워졌다는 필리핀 정부 발표에 따라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 입국 절차가 완화돼 접종 증명서만으로 격리의무 해제와 입국시 코로나 검사 의무가 없어졌고,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에 따라 전면적인 등교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요셉의원에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여러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260명의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었는데,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대면 급식이 중단되고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포장해 가도록 해 왔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았다.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면 급식 대상 아동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먹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웃이 그 음식을 빼앗아 먹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정

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면으로 급식을 할 수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정해진 아동에게 대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학생 모임도 활기 띠기 시작

이와 더불어 장학생 모임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요셉의원의 총 장학생 수는 원래 약 60여 명이지만 코로나 사태 중에 ‘장학생 졸업’은 시켜도 장학생을 새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현재 인원은 4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세 명밖에 안돼 신규 장학생 모집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감에 따라 그동안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장학생들의 모임을 재개하고, 신규 장학생도 받아들일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주일학교 방식을 현지 상황에 맞추어 적용 중인 점도 하나의 변화라면 변화다. 대학생들을 어린 아동들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로 기용해 교리를 비롯해 다른 여러 활동들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한 학년당 10명 안팎의 정원을 두어 모두 150~160명 정도의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며 앞으로는 외국인의 입국이 더욱 쉬워지고, 대단위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에서 찾아오는 의료봉사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바랑가이(한국의 ‘동’)에 의료봉사를 나가겠다고 문의한 결



사진 왼쪽은 코로나 이전 대면 급식 모습. 오른쪽은 의료봉사단의 진료 장면



과, 크게 환영하며 필요하다면 환자들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력으로 파견해 주겠다고 밝혀왔다.

김다솔 원장신부는 “앞으로 대면 급식, 장학생 모임 활성화, 의료봉사를 통해 이곳 사람들과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기소 지붕 건축 시작

지난 9월 말 환자 대기소를 만들기 위한 지붕 건축을 시작했다. 종전에는 지붕 대신 넓은 천막 두 개를 펼쳐 그 아래에서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천막 지붕은 비와 해를 피할 수는 있었으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안으로 들이치는 비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이 천막 한가운데로 웅기종기 모여야만 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막이 낡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서울교구 가톨릭경제인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기소에 철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지붕 공사는 10월 중 완공을 목표로



천막으로 덮은 환자대기소 지붕을 튼튼한 철제로 교체하는 작업. 10월 중 완료 예정이다.

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소뿐 아니라 특히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한국 의료봉사팀 방문 진료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깔로오칸 교구 내 4개 교도소 진료 재개

코로나 이전인 2016년 말부터 필리핀 요셉의원은 소속 교구인 깔로오칸 교구 사회복지회(까리따스)와 협력해 4개 교도소(말라본 교도소, 말라본 여자교도소, 나보파스 교도소, 깔로오칸 교도소)에서 매달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해왔었다. 이 지역 교도소는 좁은 공간에 모두 3000여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어 전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4년 11월에도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의료봉사단이 말라본 교도소를 방문해 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들 교도소에서의 의료 봉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교도소 내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진료가 재개됐다. 내과 의사 3명과 치과 의사 1명으로 이루어진 의료팀이 10월 26일 첫 진료를 시작으로 매달 교도소 한 곳을 방문하여 수감자 대상 진료를 해 나갈 예정이다. +



2016년 12월 나보파스 교도소 방문 진료를 나간 필리핀 요셉의원 의료팀(왼쪽)과 2014년 11월 말라본 교도소에서 의료봉사를 한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의료봉사단.



복음 묵상

부와 가난에 따르는 각각의 명(明)과 암(暗)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듯합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 안에서 유흥이나 욕망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발견하고, 물질을 도구 삼아 신앙이 견고해진다면 진정한 물질 안에도 행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그렇다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25)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면 부는 곧 악이 되고 가난은 곧 선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면 이것은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말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는 죄악이고 가난은 선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풍요 안에 살 때는 가난을 동경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더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곳으로 오니 실제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가난 안에서는 풍요와 부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부와 가난이라는 서로 다른 두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선택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욕심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눌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삶을 하나로 정의하기보다 그 삶의 자리마다 명(明)과 암(暗)이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러나 두 삶에도 경향은 있습니다. 한국의 풍요로움 안에서 저는 저축을 시작했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저축하면서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없던 것이 생기자 집착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김다솔 원장신부가 대학생 교리 교사들과 회합을 하고 있다.

제 마음이 하느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난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텅 빈 쌀통과 나만 바라보는

가족이라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안 좋은 유혹에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움은 곧 하느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사치를 부리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서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곧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도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나 가난 그 자체라기보다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가치중립적인 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다 높으신 하느님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데 물질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순간의 풍요보다는 천상의 영원한 상급, 일순간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부르심입니다. +

+ 2022년 8월 ~ 9월 신규 후원회원 (11명)

- 김계숙 ● 김다희 ● 김미행 ● 김순례 ● 김연중
- 유인숙 ● 윤시림 ● 이성준 ● 이현규 ● 최귀철 ● 홍금순

+ 2022년 8월 ~ 9월 신규 후원단체

- 성산2동 성당

+ 2022년 8월 ~ 9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756명 ● 급식 10,202명
-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347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9월 현재)

- 진료 88,385명 ● 급식 443,350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2.8~9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성경공부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성경이 부족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영어와 아출리어 성경 450권 후원



우간다 아테데 돈보스코 기숙사 학생들과 이들을 돕는 까리따스회 수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9월 20일 아프리카 우간다 아테데에서 사목 중인 양혜선 수녀(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가 본회를 방문해 아테데 돈보스코 중고생들과 인근 기숙사 학생들 그리고 아테데 진료소 직원들과 진료소 공사 노동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양 수녀팀은 지난 9월 8일 우간다 현지의 신자들을 위한 진료소가 문을 열자 진료소 직원들과 성경읽기를 시작했

다. 그때 진료소 건물을 짓고 있던 노동자 20여 명이 함께 성서를 읽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그뒤부터 매일 복음을 읽고 해설을 곁들이며 성경읽기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읽을 성경이 부족하다는 점.

학생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우간다는 마을이 흩어져 있거나 교통수단이 원활치 못해 대부분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양 수녀는 “많은 학생들 역시 성서에 대해 궁금해하고 성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성서 공부팀을 꾸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수녀는 국성회 측에 성경 관련 요청사항과, 성경을 지원받은 뒤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한영 신약성서는 우간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한글 공부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 국성회에서는 이 말을 듣고 한영 신약 성경 한 권을 양 수녀에게 즉시 전달했고, 양 수녀는 이 책을 현지에서 필요한 만큼 복사 제본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진료



양혜선 수녀가 본원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를 방문해 성경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소 직원들에게 신구약 성서를 보급하면 성경 필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도 복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주일미사는 아출리어로 봉헌되므로 많은 신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출리어 성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 몇 명이 찾아와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교사들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

상자가 찾아와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성경책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양 수녀는 “국성회에서 성경을 지원받으면 성경공부반을 꾸리는 한편 가정에도 성경을 나눠주어 복음을 전하고, 인근 기숙학교도 방문해 성경 공부(텍시오디비나)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널리 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 국성회에서는 양 수녀의 요청에 따라 10월 7일 영어 성경 200권(3,055.55달러), 영어 신약성경 200권(833.33달러), 아출리어 성경 50권(347.22달러), 한영 신약성경 1권(국성회에서 증정) 등 총 4,236달러(=6,043,000원)를 후원했습니다.



양산 성모올타리, 노트북 후원 받아

지난 8월 말 양산 성모올타리에서 성경 교리 공부를 위한 노트북 1대를 요청하는 기사를 보고 후원자 몇 분이 현물로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이분들 가운데 정인영 다미아노 후원자가 10월 5일 성모올타리 쪽으로 직접 노트북을 전달해 교육에 큰 도움을 얻게 됐다.

후원회 10월 미사, 이문주 신부와 공동 집전

국성회 후원회 미사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 현국성회 담당 사제인 홍근표 신부와 전임 담당 사제 이문주 원로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 미사에는 국성회 후원자와 요셉의원 직원 및 봉사자 등



국성회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이문주 원로신부(오른쪽)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모두 30여 명이 참례해 이문주 신부의 영명축일과 사제수품 60주년 회경축도 함께 축하했다. 국성회 회원들은 미사 뒤 플루트와 피아노 축하 연주에 이어 이문주 신부에게 축하 인사말을 적은 카드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문주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어린 시절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7살 추운 겨울,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걷다가 아버지께 ‘천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물었

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힘있게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 천주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항상 믿음직한 분이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먼 바다 위에 해가 지는 풍경, 황홀하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

고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이 바로 천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아무런 두려움도 방황도 없이 기꺼이 사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날 미사에 참석한 윤영순 회원은 미사 강론을 듣고 “맑은 수채화 같은 신부님의 어린 날로부터 사제 생활 60년 내내 이어진 신부님의 티 없이 맑으신 마음과 사랑이 저희 신자들에게 전해져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님의 은총으로 신부님이 내내 건강하시고 앞으



인사말을 하는 국성회 박찬순 신임 회장.

로도 우리 국성회 고문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미사 뒤에는 그동안 국성회 회장을 맡아온 서정숙(젤프루다)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박찬순(그라시아)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박찬순 회장은 앞으로 국성회 회장직과 함께 요셉나눔재단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아)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박찬순 회장은 앞으로 국성회 회장직과 함께 요셉나눔재단 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

11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2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2년 8월~9월)

●강상훈 ●고현수 ●김금재 ●김낙기 ●김명숙 ●김명희 ●김범준 ●김병희 ●김성권 ●김영추 ●김영환 ●김윤순 ●김은애 ●김진우
●김춘희 ●김현경 ●김현숙 ●문경호 ●민영진 ●박소향 ●박언빈 ●박은숙 ●박종대 ●송미경 ●송보영 ●신해경 ●양영실 ●오세형
●오영신 ●윤영순 ●윤용식 ●윤종구 ●윤창현 ●이강득 ●이미순 ●이상현 ●이용애 ●이유진 ●이은행 ●이장순 ●이재청 ●이정석
●이정희 ●이종대 ●이지현 ●이향희 ●이현옥 ●이현창 ●이현규 ●이혜순 ●이희인 ●임한미 ●장선화 ●전대영 ●정병욱 ●조용덕
●조하영 ●조현순 ●진석실업 ●최경재 ●최두혁 ●최명옥 ●최문송 ●최송원 ●최원남 ●하금태 ●허 근 ●홍성실 ●홍지원 ●황세희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2년 8월~9월)

●김경식 ●김원호 ●박우준 ●박준병 ●백성호 ●오창선 ●유경춘 ●이계호 ●이문주 ●임상무 ●정순택 ●조인기 ●최광희 ●최명근
●최정훈 ●한정화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 (2022년 8월~9월)

●윤영찬 ●장을숙 ●정윤희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 (2022년 8월~9월)

●김베드로 수녀 ●부산청년성서모임

■ 2022년 8월~9월 후원금 내역 : 9,499,000 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06412	(재)천주교서울대교구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 로마서 12, 12-13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5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알코올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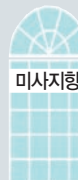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